

행복도시 이야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행정중심복합도시

Vol **201** 2023. 12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제는 자족기능” 도시전문가 한 자리에

■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도시계획 성과와 미래 등 논의



행복청은 행복도시 자족기능 유치 현황을 되짚어 보고, 미래 행복도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행복도시 자족성 제고 및 도시활력을 위한 심포지엄’을 12월 18일(월) 세종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기호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의 ‘행복도시 가치 및 미래방향’에 대한 기초강연과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행복도시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권일 부회장, 행복도시 총괄자문위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1부 행사에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산업기반 자족성 확보방안’(한양대 이수기 교수), 지역주도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언하는 ‘행복도시 산업발전전략’(세종테크노파크 조병설 팀장),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자족성 확보방안’(고려대 변영주 기획처장) 발제와 외부 전문가들의 세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도시계획 성과 진단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우수사례 및 미래방향’(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연구위원),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체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도시계획 관리 및 운영방안’(백기영 기획조정단장) 발제를 듣고, 총괄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행복도시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행복도시 건설 단계가 3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도시 스스로가 자립적 발전을 갈구할 수 있는 기반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학·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내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에 문화 및 상업 등 다양한 기능, 콘텐츠를 확충하여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내년은 공동캠퍼스가 개교하고, 세종테크밸리 공급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의 자족기능 확충 노력이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 심포지엄이 행복도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등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충청권 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남아 있는 도시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책로와 산악자전거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 ‘원수산MTB공원’

■ 제 15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책기자단 최보라 기자



안녕하세요. 기온이 제법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 걱정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 노심초사, 외출조차도 꺼리기 일 수입니다.

하지만 겨울이라고 집에만 있다면 아이는 물론 어른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요.

오늘 소개할 장소는 겨울에도 우리 가족 모두가 땀 흘릴 수 있는 액티비티 한 공간 원수산 MTB 공원입니다.



원수산 MTB공원은 전국에 얼마 없는 산악자전거 전용 공원인데요.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기면 세종리 659-30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수산 아래 주차공간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눈에 띄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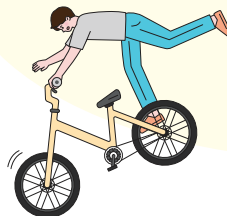
원수산MTB 공원은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자전거를 가지고 와도 주차공간이 넓어서 주차를 하고 이용하시면 될듯합니다.

관리사무소에는 화장실과 벤치가 있고, 자전거를 세워 둘 수 있는 별도의 주차 공간도 있었습니다.



원수산 MTB 공원은 MTB 코스와 함께
BMX 경기장이 별도로 조성돼 있습니다.



BMX 경기장을 중심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트랙처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돌이나 웅덩이가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X 경기장을 살펴볼까요?

BMX 경기장은 유소년 선수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시가 조성을 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선수 전용이므로 일반 성인은 반드시 사용 승인 후 이용해야 하는데요.

경기장 이용 시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해 봐야겠죠.



경기장을 보면 스포츠 채널에서 보던 트랙이 보입니다.

마치 파도를 치는 듯 하게 구불구불하게 굴곡을 만들어 놓은 코스가 눈에 띄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언덕을 넘어야 하는 만큼 꼭 안전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조금 높은 장소는 경기가 있을 때 출발을 하는 출발선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경사도가 있다 보니 출발 당시에 가속이 상당히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출발을 하며 굴곡진 트랙으로 이어지는 경기 일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을 지나면 끝 부분에 약간의 경사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산악자전거가 방향을 바꾸는 공간인데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방향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초보들은 넘어지고, 다칠 위험도 있다고 하니 일반 자전거로 위험하게 탑승을 하면 안 되겠죠.

경기장 앞에는 관중석이 있어서 정면으로 바라보며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 관중석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멋진 시설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방문을 하신다면 공사하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BMX 경기장 옆으로는 MTB 코스가 조성이 돼 있는데요.
코스는 총 3코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A와 B 코스를 합쳐서 7km가 넘는 코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MTB코스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1시간정도면 트랙을 다 라이딩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보자라도 천천히 이용하면 쉽게 공략이 가능한 코스라고 하네요.



특히, A코스는 부드럽고 낮은 경사도로 이뤄진 코스여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 속에서 자연지형의 굴곡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전문가들에게는 인기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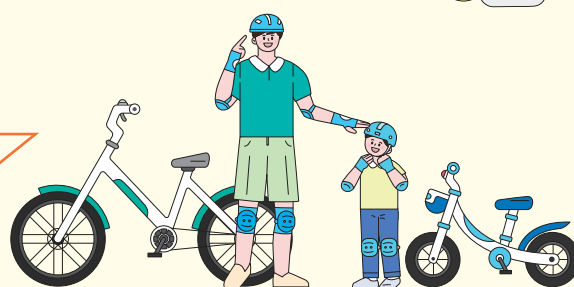
원수산은 행복도시 시민들의 등산 코스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MTB공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산책이나 등산을 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산악자전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일반 자전거와는 조금 달리 익스트림 한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안전교육도 꼭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하기 전에는 꼭 전문 교육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수산 MTB 공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추운 겨울이라고 집에만 있기보다 가볍게 등산도 하고 산악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원수산 MTB 공원에 방문해보시면 어떨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활기찬 겨울 보내시길 바라게요!





성명: 김규철 (金奎哲)

생년월일: 1969. 10. 1

(경북 영덕)

- 2006년 미국 콜로라도대 행정학 석사 졸업
- 행정고시 41회

김규철 행복청 신임 차장 취임

행복청은 김규철 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12월 1일자로 행복청 신임 차장에 임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규철 차장은 경북 영덕 출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1회로 1998년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약 26년의 근무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해외건설지원과장, 국토정책과장, 공공주택추진단장, 기술안전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등 국토도시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의 대외 경력도 풍부합니다.

김 차장은 정책 시야가 넓고 기획력, 추진력, 교섭·조정 능력이 뛰어나 국토교통부 내에서 핵심 인력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사의 신임이 두텁고 직원에게는 모범적인 리더로 선정될 만큼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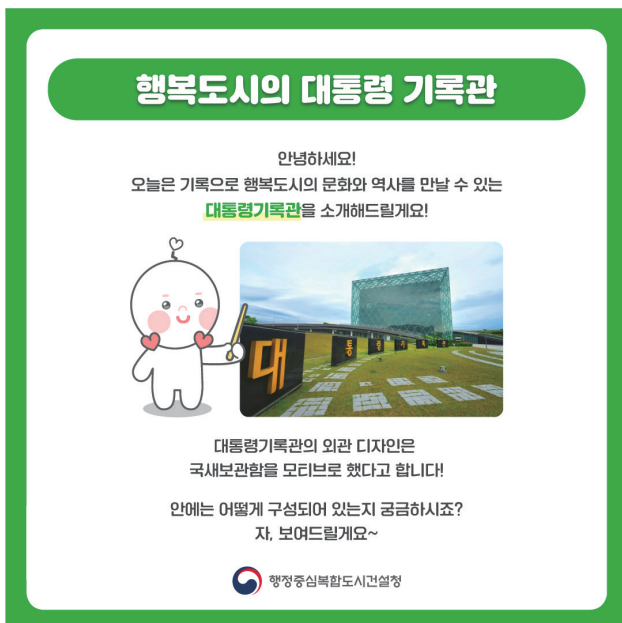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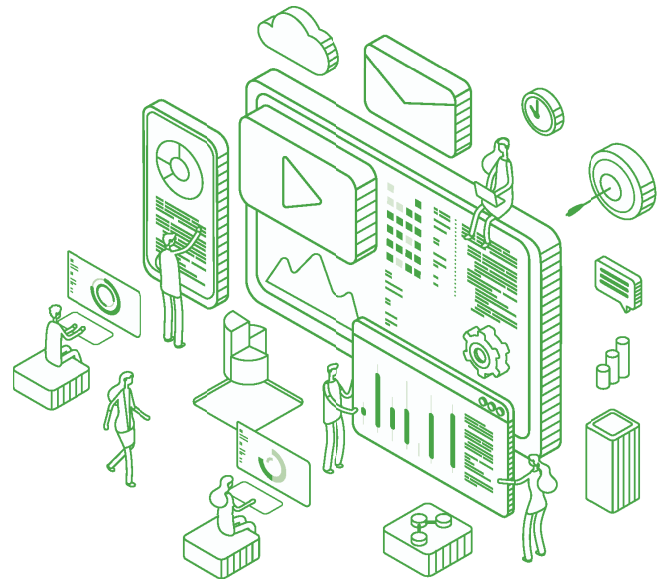
김규철 차장은 “그동안 국토·도시 분야에서 수행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행복청,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복청은 12월 19일 세종시 연서면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시설 직원과 보호아동을 격려하고, 소정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행복청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행복도시가 이끄는 공간의 변화, 함께 사는 사회로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제 1인 가구가 대세!’를 캐치프레이즈로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10년 전 시작한 이 방송은 1인 가구의 로망과 현실을 보여주며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이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진정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영화보기 등 홀로 즐기는 일상이나 1인용 가전제품과 밀키트가 출시되는 등 소비경제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웃 간 단절,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인 가구의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고 촘촘한 연결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 공동체 조성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07년 시작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비전도 단순히 콘크리트로 된 도로나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타인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행복청의 여러 시도와 노력 가운데 ‘함께 산다’는 철학을 지난 17년간 꾸준히 적용해 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복도시 15개 마을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입지하여 어디서든 ‘내 집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 불리며, 행복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설이자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중 행복청과 지자체, 학교, 주민자치회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해밀마을의 사례는 더욱 특별합니다. 마을 전체를 큰 그림으로 두고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니, 시설 간 경계와 벽은 허물어지고 소통과 공유의 공간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단지 구석구석 물줄기처럼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보면 좁은 학교가 아닌 탁 트인 공원에서 마음껏 공차고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복합커뮤니티 센터 너머 악기 연주 소리, 퐁퐁 튀는 탁구공 소리가 들려옵니다. 맛있는 성냥갑 같기만 했던 공동주택도 이곳에서는 근사한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시끌벅적 어울리는 소리마저 정겹습니다.

주민들 또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며 단지 안팎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학생들이 주도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일정 교육을 거친 어르신들이 돌봄교실 보조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미술·음악·요리 등 배움교실을 여는가 하면, 동네를 설계한 건축가를 초청해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작지만 주체적인 활동이 모여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토양이 되고, 그 위에 비로소 ‘함께 사는 사회’가 싹 틔우는 것입니다.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지역공동체 구심 역할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해외원조(ODA)사업으로 제안하는 등 전 세계와 공유하는 지역커뮤니티 모델로서 지평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혼자 사는 일상만이 아니라 명절을 같이 보내고 김장과 이사를 돕는 등 혼자지만 함께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로망과 자유로움도 사람 사이의 정(情)과 공동체가 뒷받침되어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해밀동 복합커뮤니티 단지와 같은 지역 공동체가 더욱 보편화되어 옛날과 같이 이웃을 이웃사촌으로 부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KDI 대학원 유학 외국공무원, 행복도시를 배우다

■ 개도국 출신 지역개발 석사학위생 대상 행복도시 건설사업 설명

행복청은 12월 12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지역개발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 공무원 일행이 행복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은 행복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관람하였습니다.

몽골,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등 10개국 공무원 15명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이론과 실무를 교육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지역개발 선진사례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학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문단은 견학을 마친 뒤, 행복도시에 거주하면서 체감한 정주여건 및 도시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행복청 김형렬 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개발도상국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내 유학 중인 외국공무원의 방문을 정례화하여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가운데)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지역개발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 공무원 일행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 산울동 지역민의 소통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착공

■ 2026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세대를 아우르고 공동체를 이어주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행복청은 행복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공사를 12월 20일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10월부터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간이형종합심사제에 시공평가를 도입한 시범특례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시공사 선정방식과 달리 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역량 확인을 통해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의 안전 및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060.78㎡(부지면적 1만 110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세무시설은 주민센터, 노인문화센터, 보육시설 공동육아 나눔센터, 문화의 집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며, 기존 복검에서 볼 수 없었던 “청소년 미래인재센터”를 특화하여 주변 학교들과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2021년 설계공모를 통해 인근 문화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복검의 공개공지와 문화공원 사이의 단차를 없애 경계를 허물었고, 특히 공원과 연계된 복검 내부의 중앙광장(link square)은 각 시설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접근이 쉬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행복청, 2023년도 청렴 우수 표어 선정

■ ‘청탁’은 거절해야 제맛!, ‘청렴’은 함께해야 제맛!!! 최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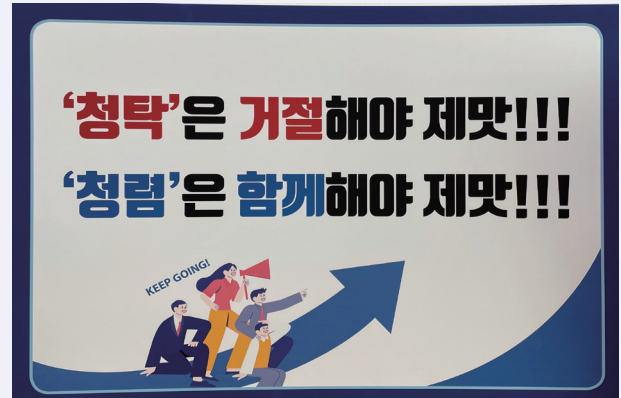
행복청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2023년도 청렴표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당선작 2건을 선정했습니다.

청 내 17개 부서가 참여하였으며, 내부 직원 투표와 청렴 시민 감사관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등 총 2건의 표어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독특하고 재치 있는 표어들이 눈길을 끈 가운데, 최우수상은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청탁’은 거절해야 제맛!, ‘청렴’은 함께해야 제맛!!!”이, 우수상은 사업관리총괄과에서 제출한 “멈추지 않는 당신의 청렴, 언제나 청렴 ON AIR”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표어는 행복청 누리집 배너, 직원 PC 화면 보호기, 청렴 문자 등으로 활용됩니다.

청렴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제1 덕목입니다. 행복청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청,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을 대비한 미래청사 이전수요 수용방안 고심

■ 공공청사 미래수요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약 20만 제곱미터 미래수요 검토

행복청은 15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공공청사 미래수요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행복도시 개발이 2007년 시작된 이후, 공무원 증원 및 기관 추가 이전 등으로 향후 행복도시 내 공공청사의 추가 건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행복도시 내 공공청사 미래수요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예측하고 적절한 입지를 사전에 계획하여 미래 행정수도의 기관이전 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황재훈 교수)이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청사 단기수요에는 현재 민간 건축물을 임차하여 활용 중인 기관과 제2행정지원센터 등 단기간 내에 예상되는 수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약 4만 제곱미터 내외로, 기존 청사 간 연계성과 업무 효율성, 보안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1-5생활권 중심행정타운 남측 부지가 우선 검토 제안되었습니다.

중기수요에는 수도권 소재 위원회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따라 이전이 예상되는 유관기관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약 4만 제곱미터로, 수도권 소재 위원회에 대해서는 2-4생활권 국제청 인근 부지가 우선 검토 제안되었고,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유관기관은 S-1 생활권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부지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장기수요에는 행복도시법에 따른 이전대상 제외기관과 향후 행정수도를 감안하였을 때 사법부 등을 고려하여 입지 필요 부지면적을 약 11만 제곱미터로 분석하였습니다.

장기수요는 6-1생활권 등 현재 도시계획 미수립 생활권을 활용하여 별도 구역(클러스터)을 형성하여 유사한 업무 기능 군을 집중하여 배치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집적화하여 행복도시에 광역발전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주요시설의 입지 및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개발 생활권에 필요한 유보지 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행복도시, '실질적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행복도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행복청은 국회세종지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설치를 반영한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11월 16일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오는 12월 22일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도시건설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과 주거·산업·교통·문화 등 구체적 부문별 계획인 개발계획에 '국가중추기능' 도입이 명시되고, 아울러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 중심부(S-1 생활권)에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진 '열린공간' 조성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열린공간은 행복도시의 기존 6개 생활권과 기능을 연계하여 실질적 행정수도를 준비하고 실현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되며, 구체적인 공간 계획은 2024년부터 진행될 S-1생활권 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행복청은 추가 되는 국가중추기능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행복도시 중심부 대중교통 및 도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도로용량이 추가로 확보되어 열린공간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미래 수요에 대응한 후속 도시계획도 마련됩니다. 행복청은 내년에 청사용지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미디어, 협회·단체 등 핵심 자족시설의 입지,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를 확보하여 열린공간과 다른 생활권의 기능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복청은 이번 기본 및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행복도시 3단계 완성을 이루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청, 동절기 안전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행복청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23일(월)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 34개소를 점검한 결과 546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붕괴, 추락 등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동절기 건설현장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여 동절기 도래 전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행복청은 토목, 건축 등 분야별 기술자문위원과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동절기 화재·붕괴·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실태, 한중콘크리트 사용, 보온양생 계획 등 동절기 시공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및 공종별 시공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동절기는 건설현장 내 화재, 폭발, 구조물 붕괴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복이와 한글교시(10교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사자성어 배워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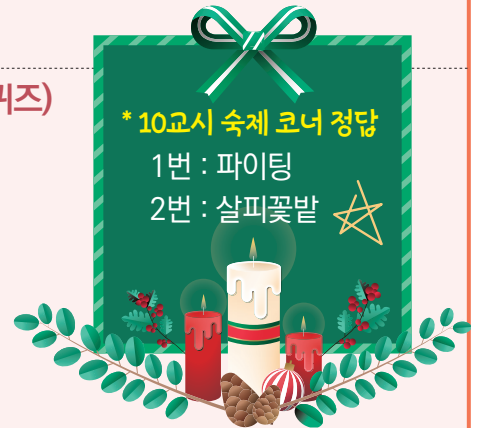
수 **복** **강** **녕**
(壽) (福) (康) (寧)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건강하고 평안함

- '그렇잖다'와 '그렇찮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예전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잖다. (X) - 예전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찮다. (O)
- '박힌'과 '박인'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그 남자의 굳은살 박힌 발을 봐.(X) - 그 남자의 굳은살 박인 발을 봐. (O)

숙제 코너 (난센스 퀴즈)

- ① 깨뜨리고 칭찬 받는 것은?
(신기록)
- ② 무가 자기소개를 할 때 하는 말은?
(나무)



* 10교시 숙제 코너 정답

1번 : 파이팅

2번 : 살피꽃발 ★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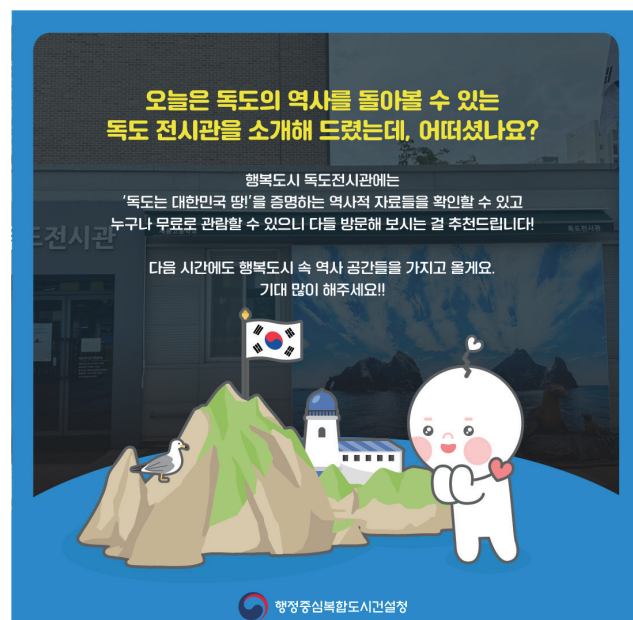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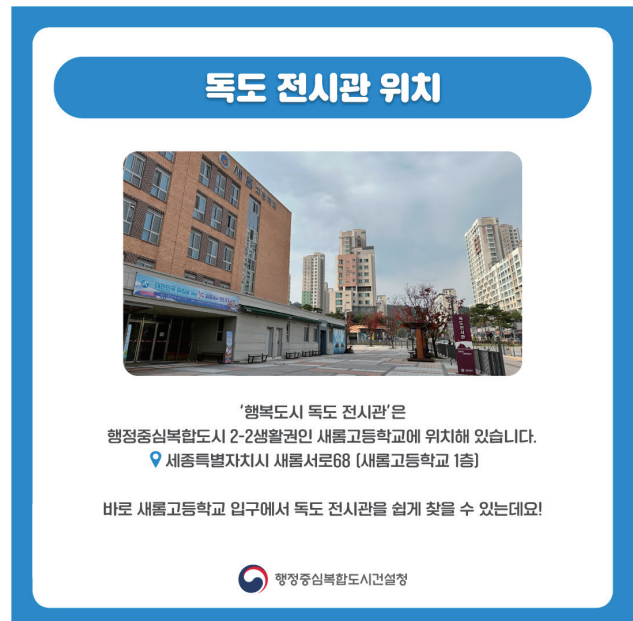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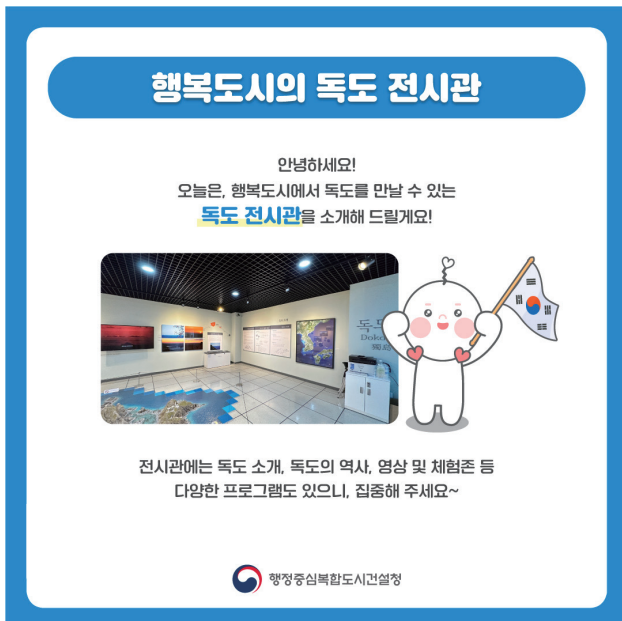
행복도시의 도시적인 모습과 역사공원의 옛 정취가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는 이 곳은 고인돌과 세종시 향토문화유산 제29호로 지정된 정열지문과 다양한 전각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모습과 옛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이 곳은 어디일까요?

힌트는 행복청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드 **리** **지** **오** **스** **기** **오**







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겨울이 불합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사용안내

구분	신청기간	요금차감(잔액)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잔액)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일 ~ 2024년 4월 30일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국민·서울·경기·인천·충청·전남·전북·제주도 지역별 신청일과 요금차감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 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중 지방교육기부금 지원 제외액이다
* 동절기 바우처를 발급받은 주민이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연탄은 400원/단, 최대 100단/가정, 최대 100단/가정(연탄 100단)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산학
* 하절기 바우처 신청은 등유가 바우처로 사용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일과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RE3 한국부동산원

“비대면은 기본! 대면계약 시에도 활용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잠깐! 전자계약시스템은 중개업 여부 실시간 검증을 통해 무자격자 불법 중개를 방지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등으로 서명이 가능하여 대리계약을 차단하는 등 거래사고 예방효과가 우수합니다!

- ### 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0.1~0.2%p)와 주택도시보증기금 바임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1%p) 및 전세보증 보증료(3%)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인하(0.1%p) 적용

(※상세내용은 은행 및 기관별 별도 문의)
(※적용은행 10곳 : 국민·우리·신한·하나·부산·경남·대구·전북·농협·SC제일)
(※주택도시보증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대사항은 '23.12.31.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용)
- ### 2.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처리하던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즉시 자동으로 신청해드립니다.
- ### 3.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분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시면 중개보수 바우처 1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①대학생(휴학생 포함) / ②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 ④고령자(만 65세 이상) / ⑤임대인

(※신청순으로 접수하며 연도 내 제한 소진 시까지)

고객지원센터 1833-4662
https://irts.molit.go.kr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Winter Youth Olympic Games Gangwon 2024

01.19-02.01 • @GANGWON2024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행복청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p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